전법 일기

자녀 걱정 많던 하와이 부부에 부처님 법으로 고민 해결 완료

무척이나 더운 한여름이었다. 외국인 남녀 커플이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에 와서 입장료를 물어왔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하와이에서 온 부부라고 하였다. 한국은 처음이라 사찰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입장료는 없고 자유롭게 전각을 들어가도 좋다고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안내소에 들어오라 했더니 흔쾌히 들어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은 불교 특히 한국불교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샤머니즘의 일종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또한 불교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자의식이 강한 외국인은 반감을 표하거나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아도 불편한 내색을 냉랭함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왔다는 부부에게 몇 년 전에 다녀왔던 기억을 회상해가며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하고 맛난 과일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던 해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처음의 서먹함도 잠시 이내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이야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젊은 부인에게 "너무나 아름다워 영화배우인 줄 알았다"고 찬사도 보냈다. 부부는 경계심이 풀어졌는지 여러 대화를 하다가 근래 가족에서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 부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다. 여느 사춘기 학생들이 그렇듯이 부부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귀가하면 방에 들어가 식사 때나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 였다. 대화가 점점 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니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부부싸움까지도 번지곤 했다.

그들의 고통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를 대비하여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한한 자비심을 강조했다.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여 그 원인이 '나'라는 생각 '내 것' 즉 '나와 나의 자녀'라는 집착과 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망과 실망이 원인임을 냉철히 보도록 했다.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과 욕망을 버릴 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자녀들을 온전히 이해해 주고 자애와 자비로 부모로써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미숙하여 자라고 있는 자녀에게 무한한 자비심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본인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식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의 틀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가족에게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 불교에 대해 즉 마음공부를 하면 지혜의 눈을 얻게 되고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였더니 감사해 하며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부부와 나는 뜨거운 허그(Hug)로 인사를 하였고 그들이 조계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그들 가족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빛 가득한 들판

황구지천을 따라 늘어선 벚꽃 길을 걷는다. 벚나무들의 표피 속으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얼마나 봄빛을 기다렸을까. 머지않아 일제히 꽃을 터뜨릴 것이다. 키 큰 벚나무 아래로는 앉은뱅이 풀들이 푸른 융단을 펼치고 있다. 냉이가 납작하게 엎드려 실뿌리의 강인함으로 풋풋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벚꽃 길이 끝나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농부들이 논의 흙을 뒤엎었나 보다. 겨우 내 땅속에서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굳어있던 흙이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봄바람에 논흙이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벼를 수확할 때, 왜 벼 발목을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흙 속에 묻혀 옴짝하지 못했던 발목 아래의 뿌리도 뒤엎은 흙을 따라 땅 위로 올라와 기지개를 편다. 누런 벼 뿌리대마다 푸릇푸릇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 농부들은 머지않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새로운 모종으로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묵은 벼 뿌리는 봄빛이 비치면 어디든 상관 않고 푸른 잎을 키워낸다.

들판을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천에 무리지어 떠 있는 야생오리들을 바라본다. 물위에서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 그동안 축축했던 깃털을 말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천 옆 둔덕에서 몸을 말릴 것이지 왜 물에 떠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을까. 물가에서 버들강아지가 한창 눈을 틔우느라 분주해서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봄볕이 오리의 깃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흐르는 하천을 윤슬로 빛나게 한다. 그 물 위에서 반짝거리는 별꽃들 아래로 언뜻 오리의 붉은색 발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물 위로 둥둥 떠 있는 오리가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는 저렇게 쉼 없이 두 발로 헤엄치고 있을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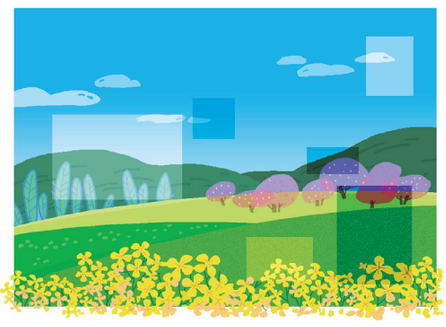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마를 간질이는 햇볕의 촉감이 부드럽다. 봄빛을 가득 품은 들판은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들판을 껑충 뛰어가는 고라니에게 안녕하고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한다. 누런 갈대가 긴 잎을 서걱거리며 대신 화답한다. 겨울바람에 살점이 뜯겨 나갔어도 땅속에 완강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갈대는 목은 쉬었지만 제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온몸이 풍화되어 흩어진다 해도 그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갈대들 사이로 이팝나무 가지들이 나뒹굴고 있다. 겨울에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 따뜻한 빛이 비치고, 새들이 지져대도 그들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머지않아 쌀알 같은 꽃을 피워 봄을 환하게 밝힐 이팝나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은 저렇게 생명을 잃는구나. 우리 인간도 불법(佛法)에서 벗어나면 저 메마른 이팝나무 가지와 다를 바 없으리라.

3월의 봄은 분주하다. 봄빛은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수선화의 구근을 밀어 올리고, 진달래와 개나리의 꽃눈을 틔우고, 여린 쑥에게 씁쓰레한 향을 불어 넣어 노인들의 입맛을 돋우게 하느라 한 눈 팔 겨를이 없다.

봄빛은 쉬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빛을 받아야 꽃은 피어나고 송아지는 살이 오른다.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밀어 올려야 새사람이 될 것이다.

나, 봄빛 가득한 들판을 걸어간다.

〈작가〉

기자칼럼

강화엔 국립고려박물관이 필요하다

강화도를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역사의 섬'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강화 8경 중 한 곳인 마니산에는 단군왕검이 천제를 올리던 곳인 '참성단'이 자리하고 있다. 민족의 영산이기에 매년 전국체전 성화가 이곳에서 채화된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수도 개경, 한성과 가까워 군사적 요충지였다. 고려 무신정권은 대몽항쟁의 중심지로 강화를 선택해 수도로 삼았고, 조선의 인조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로 피신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다. 왜란·호란 이후에는 강화유수부로 지정, 한양의 외곽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 중 하나였다.

근현대와서도 병인박해를 이유로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신미양요를 강화도에서 일으켰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근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역사를 공부하면 한국 근현대사 절반은 알 수 있다는 농담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적으로 강화도는 중요한 곳이다. 전등사와 정수사 등 같은 고찰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선원사지도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화도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4월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의 고려문화를 홍보하고 5월에는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古都)이자 남한 지역 유일한 고려 역사 중심지이지만,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했기에 강화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불교를 신봉했던 고려는 강화도 천도 당시 30여 개의 궁궐을 지었고, 선원사지에서는 팔만대장경을 판각했다고 전해진다. 판각지 논란이 있지만,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이 조성되고 관련 연구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